

독자투고

2024 화동조선족주말학교 낭송·낭독대회 성개최

지난 15일 '화동조선족주말학교 제8회 낭송·낭독대회'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이금사과학교 국제회의중심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날 낭송 낭독 경연에는 3개월 동안 열심히 갖고 닦은 능력과 수준을 발휘하는 무대가 펼쳐졌다. 경연 참가자 어린이들은 부푼 가슴을 안고 무대에 올라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낭송 경연대회 금상에는 화차오분교 엄지현, 은상에는 항주분교 이현우, 이우분교 오민서, 동상에는 소주분교 엄현수, 항주분교 오서연, 화차오분교 최명연 어린이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낭독 경연 금상에는 지우팅학구 문효은, 은상에는 지우팅학구 김아림, 푸동학구 강하운, 동상에는 화차오분교 김준수, 푸동학구 조윤혁, 자당학구 위혜진 어린이가 수상했다. 이번 경연에서 백지영, 하옥란, 김영애, 한지연, 서해남, 송여영, 정은화, 전영실, 전예화 교사 등이 지도한 어린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번 경연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국화 교수는 "빠르게 발전하는 현시대에 우리 민족 어린이들이 멋진 꿈을 지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앞으로 원하는 일을 하려면 다양한 지식을 열심히 익히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연에 앞서 박창근 학교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

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지금 대규모 이동을 하고 있다. 조선족 대다수가 산재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기성세대의 삶에서 전통 문화의 내용은 많이 생략되었고 신생세대의 삶에서 우리말, 글은 전승되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조선족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우리주말학교 학부모들의 선택을 가장 존중한다. 자녀들을 우리주말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의 현명한 선택은 영원히 후회되지 않을 선택이다. 현재 우리 주말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은 향후 부모님들의 오늘의 선택에 무한한 경의를 표시할 것"이라며 대회 진행을 위해 후원과 협찬을 보내온 단체와 개인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상하이총영사관 조홍선 영사, 상하이조선족문화교육후원회 김홍란 회장, kc-sea 상하이이사회 이정수 회장, 월드옥타상하이회 장경범 회장, 상하이조선족여성협회 최림애 회장, 청도정양한글학교 권연이 교장 등이 축사를 통해 후대들에게 우리 민족 전통문화와 우리 말, 글을 가르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박창근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찬사를 전하고, 주말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번 낭독, 낭송대회를 계기로 우리 어린이들의 한국어공부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고 우리 교사들이 민족문화교육 사명감과 책임감을 더욱 높여 우리 주말학교가 더욱 새로운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



상하이의 사랑법 14

사랑이 식었을 때_ 평징구전(枫泾古镇)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듣다 보면 조금쯤은 그 설렘을 함께 맞볼 수 있다. 향기롭고 몽글몽글한 기운이 주변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사랑이 식었을 때는 입을 다무는 편이 좋

다. 구구절절 늘어놓는 이유는 그저 변명일 뿐, 사랑이 식게 된 진짜 이유도 아닐뿐더러 해롭기까지 하다. 철없던 시절 그런 실수를 한 적 있다. 헤어지자는 나에게 그는 떠나는 이유를 끈질기게 물었다.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야 했는데, 집요하게 물어오는 그에게 그만 뽀족한 척 때문이라고 말해 버렸다.

“사랑이 끝나면 말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어 미쳐 다닌다

내가 한 사랑이 겨우 그랬나 싶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난 것이 몇 번이었나” (이병률 '과녁' 일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도, 싫어하게 되는 것도 수많은 이유를 붙일 수 있으나, 실은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냥'만이 정답일 것이다. 사랑에 빠진 이유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점이 상대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한때 도도함이라 여기며 사랑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오만함이나 무례함, 파렴치함으로 보인다. 순수함은 무지함과 뻔뻔스러움이 되었다. 어느 작가의 말처럼 동네를 산책하다 어제 보이지 않던 새로운 쓰레기만 보아도 그게 글감이 될 수 있다. 다른 시각으로 삶을 보고 싶어 집 떠나 낯선 곳을 찾아가면서도, 다른 한편 아무 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곳이 중국인 이상 새롭을 게 없을 거라는 마음. 오랜 시간 뜨겁게 사랑했다 해도, 어느 순간 마음이 차갑게 식을 수 있다. 식은 마음으로 상대의 좋은 점이나 아름다움을 찾는 건 쉽지 않다.

외모를 보고 그를 사랑했던 게 아니었으니, 그건 헤어짐의 진짜 이유 일리 없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지껄이다, 영악하게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있던 지점을 건드렸던 것뿐이다. 그는 결국 양악 수술을 받았고, 나는 한동안 그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다. 다행히 가끔 화면에 나오는 그의 얼굴을 보니, 그가 내 헛소리 덕을 본 것 같아 미안함이 많이 줄었다.

헤어지는 것도 사랑의 일부다. 식어버린 사랑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없다면, 그냥 침묵하는 편이 낫다. 헤어진 연인에 대해 너절하게 떠들어대는 것만큼 추한 것도 없으니. 사랑이 식는 건 내 잘못이 아닐지 모르지만, 식은 사랑을 잘 마무리하는 건 내 몫이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이유를 줄줄이 읊어대도 좋다. 설사 100% 사실이 아닐지라도



윤소희 작가. 2017년 <세상의 중심보다 네 삶의 주인이길 위해>를 출간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06년부터 중국에 거주. '책과 함께'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책 소개와 책 나눔을 하고 있다. 전 Bain & Company 컨설턴트, 전 KBS 아나운서. Chicago Booth MBA, 서울대학교 심리학 학사. 저서로는 <세상에 하나뿐인 북 매칭> <산만한 그녀의 색깔 있는 독서> <여백을 채우는 사랑>, 공저로 <소설, 쓰다> 등이 있다. (위챗: @mistydio, 브런치스토리 @yoonsohee0316)



東華大學 中國·上海
중국 교육부 직속 75개소 중점대학교

ACCREDITED
Eaquals
Excellence in Language Education

본교 중국어 프로그램은
중국 대학교들 중 최초로 어학연수 품질 평가인증조직
EAQUALS(유럽 비영리 국제조직)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접수비 -200元 쿠폰

※쿠폰은 접수시 보여주세!

어학연수	학습기간	개설반급	수업시간과 비용	신청마감	특징
종합 중국어 프로그램	2024.9.9 ~ 2025.1.10 (18주)	입문~고급	월~금 9:00~12:15 10200위안	2024년 2월4일까지 온라인 신청 제출	종합 언어 능력 향상시킬 최선의 선택으로 중국어의 일상 생활활용과 HSK 시험준비에 모두 도움 될 수 있음.

중국어 학부 과정 (9월 입학)

커리큘럼 특색: 중국어 기초수업, 문화 교양 수업, 비즈니스 전공 수업 등

융통성 있는 편입학 제도: HSK 4급 180 점 이상 소지할 경우, 4년내 졸업가능

동화대학교 국제문화교류학원 유학생 입학처
주소 上海市延安西路1882号
근무시간 월-금 08:30~17:00
전화 021 62378595 / 62379115
사이트 http://korean.dhu.edu.cn



동화대학교

지하철 3, 4호선 延安西路역에서 도보로 5분 소요



위챗공식계정